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5)	봉헌 (213)	성체 (163)	파견 (39)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 안에서는 다른 교우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며 기도 또는 묵상(默想)해야 합니다.  
 예) 책장을 소리나게 넘기거나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돌아보는 행위 등을 삼가 해야 합니다.
-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미사 참례 시 영성체 (領聖體 : 성체를 영하는 것, 즉 받아 모시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영성체 1 시간 전(미사 시작 40 분 전)에는 물(생수)이나 약 외에는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체 모독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지키는 것을 공복재(空腹齋)라 합니다.
- 성당 안에서 이동시에 제대와 성체를 모셔둔 감실을 지나칠 때 제대는 가까운 위치이든 먼 위치이든 제대 중앙에 서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감실은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감실 앞에 서서 감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14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0/21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10/28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1/4	유 요한	이 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17	\$115	\$5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목주기도 5 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주기도는 미사 30 분 전에 시작합니다.

**Homeless Feeding (11/3, 7:00am-12:00pm)**

홈리스를 위한 조식 봉사가 St. Vincent de Paul 에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소: 300 Baker St, Bakersfield, CA 93305

**가을 축제** Nov 4<sup>th</sup> 2018

11 월 4 일 가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립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Nov 11<sup>th</sup> 2018 (12:00 Noon)

이 그레이스 자매님의 아들 Anthony Suh 군과 Jessica Chen 양의 결혼식이 오는 11 월 11 일 오후 12 시 아래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 Kyoto Garden - Doubletree by Hilton at 12:00pm

120 S. Los Angeles St, Los Angeles. CA 90012

피로연: Five Star Seafood Restaurant at 5:00pm

140 W. Valley Blvd, (D-4<sup>th</sup> Fl). San Gabriel. CA 91776

많은 분이 참석 하시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Sorry: 사정으로 인하여 개별 청첩장 발송을 생략하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길 위에서의 만남

-김호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걷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걷는 사람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육체적으로 고된 여행이어서 그런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특별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이 열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모녀 사이로 보이는 스페인 아주머니 한 분과 옆에서 그 아주머니를 부추기며 걷는 딸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과 눈인사 정도만 나누고 며칠 동안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걷다 보면 들판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숲속을 걷기도 하고 땀병의 도로 옆 갓길을 하루 종일 걷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날씨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산 중턱을 걷는데 예상치 못한 소낙비 때문에 삼시간에 도량물이 넘쳐 길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숲길을 헤매다 밤늦게 서야 가까스로 숙소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훌쩍 젖은 옷과 퉁퉁 부은 발 때문에 신발을 벗고서 맨발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숙소를 발견하자 웬지 알 수 없는 설움 같은 것이 복받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혹 같은 어두움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며 봤더니 저랑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길을 걸었던 그 스페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시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다시 저를 안아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며 제가 늦게까지 안와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또 제 발은 괜찮은 건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그분에게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그분은 마치 제게 수호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홀로 걷는 순례길 여행이라 두려움이 가득 찰 때도, 때로는 견잡을 수없이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 길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준다고 생각하니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그분과의 따뜻했던 만남은 여행을 떠날 당시 일에 대한 회의감으로 지치고 절망적이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니 내 안에 가득 담고 있었던 복잡했던 문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을 타인을 걱정하며 기다려주셨을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동이 밀려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를 만난 후 저는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봐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스페인 아주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서울주요에서-

**교리상식** 첫 강복이 그렇게 좋은가요?

첫 강복'이란 새로 서품된 사제가 서품 미사 직후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주는 강복을 말합니다. 준성사인 첫 강복의 효과는 아주 큼니다. 첫 강복을 받는 사람이나 강복을 주는 사람(새 사제)이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큼 새 사제가 주는 첫 강복은 주는 사람의 새로움과 열정, 받는 사람의 갈망과 맞물려 더 큰 영적 유익함을 줍니다. 누군가 첫 강복의 효험에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유익보다는 미신적인 태도로 기울어 질 위험이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